

민선 초대 3년 광주시·전남도교육감 인터뷰

“입시 급급 않고 미래역량 키울 것”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지난 28일 “광주는 교육 도시면서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도시”라며 “빛고을혁신학교의 성공 사례를 일반 학교에도 전파해 학력을 지키면서 배려하고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빛고을 혁신학교 성과 전파

낙후지역 지원 학력격차 해소

과가 나는 것은 아니다.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야, 공부할 때 집중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일선 학교에서 초기 저항은 있었지만 지금은 수긍하고 있다.

▲과학경시대회 수상자 반복 등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 반성한다. 업무에 대한 집중과 긴장감이 이완돼 발생한 것 같다. 간부회의 등을 통해 업무 긴장을 주문했다.

-공·사립 고교 간 학력 격차가 해소 방안은?

▲공·사립 간 학력 격차보다 지역 간 격차가 더 심각하다. 동구·광산구 등 낙후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높여가겠다. 또 초·중·고 연계 교육 방안도 마련하겠다.

공·사립 간 학력 격차는 고입 선발효과와 학습 분위기 차이에서 기인한다. 고입 배정에서 성적을 고려해 선발효과를 완화하고, 인사제도를 개선해 공립고의 학습 분위기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공립 일반고의 진학지도 역할을 강화하고 진학지도 사례집을 제작·보급하겠다.

-남은 1년 동안 역점을 둘 과제는?

▲학교문화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 대학 입시에만 급급하지 않고 20~30년 뒤를 내다보며 사회적 소통, 언어 소통, 인권·환경적 소양, 인간관계 능력 배양 등 미래 핵심역량을 키울 것이다. 이게 교육력 제고 사명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소규모학교 독서·토론수업 활성화”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장만재 전남도교육감은 취임 3주년을 앞둔 지난 27일 “좋은 교육시설에서 좋은 선생님에게 교육받게 하는 게 전남교육의 목표”라며 “소규모학교에 적합한 독서·토론수업의 모델을 만들고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감축 막은 게 최대 성과

항소심 재판서 무죄 밝힐 것

고등학교는 전국 경쟁이다.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춰야 경쟁이 가능하다. 거점고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적화 방안이다. 나주·보성·무안 등 8개 지역에서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 전남교육청의 입장은?

▲기숙형 중학교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다만 신안·보성·장성·여수 등 4곳은 2년 전 지역의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태에서 돌이키기 어렵다.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가능한가?

▲쉽지 않다.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어촌학교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과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경북·강원·전북 등과 협력해 19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다.

▲민고 지지해 준 지역민과 교육가족들께 감사하다. 아울러 심리를 거쳐 최종한다. 하지만 검찰이 기소한 12개 항목 가운데 9개는 무죄로 판정됐다. 나머지 3건도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해 실랑이하지 않겠다.

-남은 1년 과제는?

▲독서토론 수업의 정착과 고교 교육력 제고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독서토론 수업은 지식 습득을 종합적으로 하게 하는 쌍방향 교육이다.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에 적합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중 신뢰속 20년 미래협력 기틀 마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지지 확보... 성명에 북핵 명기는 안돼

■ 박대통령 방중 결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0일 중국 시안(西安)에서 우리 기업 시찰과 주요 유적지 방문, 재중한국인 간담회를 끝으로 지난 27일부터 시작한 나흘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했다.

와 관련해 중국 측으로부터 진전된 입장 표명을 끌어냈지만 ‘북핵’이라는 표현으로 명기되지는 않아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양 정상간 신뢰 속 향후 20년 미래협력 청사진=박 대통령은 중국 측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 시 주석이 박 대통령을 ‘라오평요우(老朋友·오랜친구)’로 지칭하며 국빈만찬을 인민대회장에서 최대규모로 연회장에서 ‘금색대청’에서 연 것이나 이틀날 이례적으로 특별오찬까지 함께한 것 등은 중국 외교계에서도 ‘과격 예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이는 박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달리 취임 직후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중국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시 주석과 오랫동안 깊은 인연을 이어온 덕분에 상호 신뢰가 탄탄하게 다져진 결과로 보인다.

박 대통령도 방중 슬로건을 ‘심신지러(心身之旅)’로 정할 정도로 한중간 ‘신뢰외교’를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은 나흘간의 방중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대북정책 기조에 중치지 끌어내... ‘북핵’ 부분은 아쉬움=박 대통령은 방중 첫날부터 이틀간 시 주석과 리 커창(李克強) 국무원 총리,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까지 중국의 정치서열 1~3위를 모두 만나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확보했다.

박 대통령은 또 리 총리와 만나는 국제사회의와 공조를 통한 6자 회담의 조기 재개라는 중국 측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중국 국빈 방문 마지막날인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산시성 시안에 위치한 진시 황릉 병마용 박물관을 방문, 관광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뢰없는 남북대화 아무런 의미 없다”

류길재, 조선대 강연서 밝혀

전두환 추정법 국회 통과 환영

해직언론인협의회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대해 “남과 북이 신뢰를 쌓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대화를 해도, 교류협력을 해도 앞으로 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지난 28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혹자는 일단 대화를 해놓고 신뢰를 쌓자고 하지만, 지난 60여년 동안 그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화가 반드시 신뢰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남북관계가 잘못되더라도 분명하게 우리가 가진 뜻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신뢰, 약속, 상호존중·호혜를 남북관계를 대하는 세 가지 원칙과 기조로 세웠다고 말했다.

“전두환 추정법”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공식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해직언론인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공동대표 고승우)는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결정은 5·18 정신을 올바르게 세우고 뿌리내리게 하는 진일보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협의회는 “전두환 추정법은 광주를 피바다로 만든 가해자가 정당한 법적 청산을 모면하고 견제할 수 있게 했던 반민주적 세력의 완강한 저지선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광주 정신을 확고히 정립할 조치가 범사회·국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Advertisement for Sunam-dong residential development. Features: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Find us at Sunam-dong. Contact: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Real Estate. Features: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5억원, 여수시 울촌면 가스충전소, 대지 2610㎡ 건물 2974㎡, 감정가격 10억1천만원, 채권매각 6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4억. 부실채권매각은 매수희망자 현장실사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앞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dvertisement for Real Estate Success. Features: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월산동 일반상업지역 6층건물 매 14.7억. ▶두암동 5층 상가 건물 8.5억. ▶지산동 5층 사무실 건물 16.5억.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 (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나주시 판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장성군 서삼면 추임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신창동 창고용지(생산농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수원지구 원복부지 323㎡(98평). 기타: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보10억 월 1,200만.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변 주유소 7억.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73-0045 010-5536-0382

Advertisement for Daewoo Real Estate. Features: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 컨설팅,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상가 주택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속(무료상담). 상가 주택: ▶동구 충장로5가 중심상권 7층상가사무실 대지579㎡, 건평2929㎡, 감정가43억, 최저가24억. ▶광산구 운남동 2층주거 3층상가주택 대지221㎡, 건평440㎡, 감정가5억, 최저가3억5천만. ▶광산구 신가동 3층상가주택 대지429㎡, 건평561㎡, 감정가6억9천만, 최저가4억8천만. 단독주택: ▶서구 화정동 2중주거2중주택 대지159㎡, 건평184㎡,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서구 화정동 2층단독주택 대지154㎡, 건평196㎡, 감정가1억6천만, 최저가1억2천만. ▶광산구 송정동 2중주거단독주택 대지252㎡, 건평131㎡,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9천만. 공장및참고: ▶광산구 지족동 준공임대지역2층공장 토지1914㎡, 건물1379㎡, 감정가15억, 최저가8억3천만.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30억, 최저가21억. ▶담양군 창평면 단층창고, 사무실 토지3279㎡, 건물1560㎡, 감정가4억7천, 최저가3억2천만. 토지매매: ▶동구 내남동 1중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Advertisement for Youngcheon Real Estate. Features: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